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3	2	5	3	3	4	5	2
6	2	7	4	8	5	9	1	10
11	1	12	4	13	2	14	3	15
16	1	17	4	18	2	19	4	20

1. [출제의도] 공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장 편지를 쓴 사상은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서(恕)의 자제가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2.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선을 알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영혼의 수련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하면 악한 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이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플라톤은 국가의 각 계층이 서로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맹자, 혹은 순자이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사람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이러한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사람은 누구나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사람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칸트와 밀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칸트, 혹은 밀이다. 칸트는 자기 행복의 원리를 도덕적 의무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선의지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라고 보았다. 밀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이긴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밀은 칸트와 달리 도덕적 행위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혜능, 혹은 지눌이다. 혜능은 사람이 누구나 자성(自性)을 단박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되므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습기(習氣)가 바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漸修)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마음의 본체(定)와 마음의 작용(慧)을 함께 닦

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혜능과 지눌은 공통적으로 중생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스펜더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펜더의 주장이다. 스펜더는 국민의 지배라는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 엘리트 간의 경쟁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스펜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민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든 현상은 원인과 주장을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석가모니는 연기(緣起)를 깨달아 존재의 실상을 통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불변하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주희, 혹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마음뿐만 아니라 개별 사물에도 이치(理)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라고 보았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마음이 있는 곳의 일(事)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이라고 보았다. 한편 주희와 왕수인은 공통적으로 마음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고[居敬] 선한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인식을 통해 현실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위경척사 사상과 동도서기론 비교하기

같은 위경척사 사상을 주장한 이항로, 혹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위경척사 사상은 유교적 가치[正]를 지키고 서양의 문물[邪]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東道]를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西器]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경척사 사상과 동도서기론은 공통적으로 성리학적 신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출제의도] 홉스와 스피노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홉, 혹은 스피노자이다. 홉은 도덕적 선악이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홉과 스피노자는 공통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데 이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이, 혹은 이황이다. 이이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모두 기(氣)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고 보았다. 반면 이황은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벌린과 페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벌린, 혹은 페트이다. 벌린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반면 페트는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지배받을 수 있는 상태에 개인이 놓여 있다면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의 지배를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장자와 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같은 장자, 혹은 노자이다. 장자와 노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법(禮法)과 같은 인위(僞)를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소박(素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 혹은 에피쿠로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해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격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을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덕(四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단(四端)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키르케고르, 혹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실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루소, 로크, 홉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루소, 혹은 로크, 혹은 홉스이다. 루소는 홉스, 로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생명 보존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재산 보호이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홉스는 국가 권력인 주권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케인스, 혹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제하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무수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자생적 시장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